

〈일반논문〉

석유와 미국역사가의 기억전쟁(II)*

양 홍 석 **

〈목차〉

- I. 서론
- II. 본론: 석유연구의 대안적 접근
 - 1. 장기 지속적 조망의 필요성
 - 2. 지정학적 연구의 필요성
- III. 결론

[국문초록]

석유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 휘발성에 있다. 바로 이런 물질의 특징만큼이나 연구 또한 변화무쌍하게 열려있다는 것을 〈석유와 미국 역사가의 기억전쟁(I)〉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최근 역사학은 지정학적 접근보다는 생태학과 환경으로, 그리고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의 연구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의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될지 예측할 수 없어 보인다. 놀라운 것은 석유 연구가 과거의 현상과 이해의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학의 차원에서 과거의 이해까지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하게 이 분야의 역사는 즉각적이고 찰나적인 21세기적 대중 연구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역사학문의 본질과 방법론상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

* 이 논문은 2021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로 이런 추세가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 환경을 위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은 역사 학문의 응용성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와 연관된 환경사적 접근과 방법론은 거의 과잉수준이다. 석유가 만들어 놓은 문명사적 묵시록을 과거 속에서 찾아보는 그들의 합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연구에서 보이는 주제어에 대한 이해와 그 단어들에 대한 동시대의 흥분과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런 경과를 통해서 왜 환경사적인 재앙이 화두가 되고 거의 과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정보 산출이 “눈부실 정도로” 노출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의 장으로 설정한다. 더 넓게 말해서 과거의 특정 시공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의 본연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미래학을 위한 학문으로 석유와 미국문명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에서 환경과 타자론, 이 두 요소를 “이상야릇한 주술”을 부려서 강조한다고 해서 석유에 대한 관심의 본말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물질에 대한 중요성은 전통적으로 이 분야의 역사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정학이었고 지경학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적어도 역사가들이 과거의 자장에서 이 물질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보면 말이다. 지난 100년간 이 물질이 중요한 변수로서 세계의 전쟁과 외교를 요동치게 한 파도들을 확인하다면 여전히 전통적인 주제와 그 방법론적 고찰이 유효하며 우리는 역사학 본연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노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석유를 연구하고 이 물질을 둘러싼 환경, 생태학적 접근을 준비하는 것은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필요불가결한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심각하다고 해서 과거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또한 그러했다고 하는 생각은 옐토당토 없어 보인다. 현재의 현상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한 역사적인 유통의 방식으로 석유를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 논문은 작금의 미국 석유 연구에 대한 발본적인 의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의 연구를 위한 지도 찾기가 어떠한지 할 것인가에 대한 시론으로 마무리 할 것이다.

□ 주제어

석유, 미국역사학회, 회고와 전망, 장기지속성, 지정학, 생태학

I. 서론

왜 역사가들이 석유에 몰두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다음의 역사가들의 답변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브리안 블랙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석유는 단지 미국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원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석유가 그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들의 옷과 그들의 이웃, 그들의 직업, 그리고 그들의 재미를 바꾸어놓았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 사회의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다.” 또 다른 역사가의 답도 명쾌하다. 미나 산티아고는 자신의 논문의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은 일성으로 시작했다. “석유가 세계 혁명을 일으켰다.”¹⁾

석유를 주제로 공부하는 역사가들의 외침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석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전편에 해당하는 글에서 그 역사적 경과를 확인하는 지평확대와 연구 성과의 놀라움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특히 전편에서 필자가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1) Brain C. Black, “Oil for Living: Petroleum and American Conspicuous Consumpt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pp. 40~50, 특히 인용문은 p. 41 참조; Myrna Santiago, “Culture Clash: Foreign Oil and Indigenous People in Northern Veracruz, Mexico, 1900-1921,” *Ibid.*, p. 62 Jay Hakes, “Introduction: A Decidedly Valuable and Dagerous Fuel.” *Ibid.*, p. 21.

『미국역사학보』에서 이 검은 물질이 만든 역사와 그 반향을 하나의 단일 주제로 놓고 특집호를 만들어내고 역사주제로 관심을 몰두하는 부분은 과히 충격적이다.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지정학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하위 주제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석유연구가 환경과 생태학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그 중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부분이다. 이것은 지난 20세기 석유문명이 이룩한 공과가 여전히 미래의 좌표를 위해서도 타당한 주제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의 접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권위와 지식으로서의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학문의 지적 유산을 차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 분야에서 연구를 조금만 훑어보아도 새로운 연합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부단히 끌어올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평들이 하나씩 열리게 될 것이다. 비로소 우리는 역사의 밑그림에서 눈에 띄지 않았던 다양한 무늬와 결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을 마주할 것이다.²⁾

한편 통섭적인 협조와 노력에서만 석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연구는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석유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신 지평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관련 자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아직도 중요한 부분에서 석유 관계 자료는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알 듯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비밀 해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공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자료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의 생존으로 인한 문제이다. 석유와 관계된 개인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줄 수 있기에 미국은 가급적 적당한 시간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물론 그런 심사숙고는 마땅히 필요하다.³⁾

2) 양홍석, 「석유와 미국역사가들의 기억전쟁 (I)」, 『동국사학』 70, 2021, pp. 147~184; Jay Hakes, "Introduction." *Ibid.*, p. 21.

3) Jay Hakes, *Ibid.* pp. 22~23.

다른 한편 이런 순수한 전제가 다가 아닌 경우도 있다. 사실 석유 관계 자료 공개가 잘 안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비난 받을 일에 대한 방어 차원이다. 바로 이런 점이 석유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석유 관련 중요 사료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석유와 연관된 기업과 은밀하게 공조하면서 후원, 지원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의 공공성을 정부 자체가 깨트리는 역할을 했던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 밀도가 있는 자료를 여전히 품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의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식이 지금의 방어였다. 자료의 공개문제가 단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연 정부가 기업과 “회사사”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는 자료에서도 적극적인 공개 의지를 실천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다.⁴⁾

그러나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언제나 시간은 역사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철옹성처럼 견고한 비밀 창고에 갇혀 있을 법한 자료들도 결국은 연구자들의 손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역사가들은 승리를 이룰 것이고 그 결과 망각되고 감추어진 사건의 진정한 의미와 사실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발군의 노력과 요구를 찾아가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도 석유 공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의 공부에서는 역사가들의 담대한 결의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이 노력은 역사가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4) *Ibid.*

5) Joseph A. Pratt, “Exxon and the Control of Oil,”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pp. 145~154; Kairn A. Klieman, “U.S. Oil Company, the Nigerian Civil War, and the Origins of Opacity in the Nigerian Oil Industry,” *Ibid.*, pp. 155~

현실적인 이해에서 출발하는 흥미위주의 주제들에 대한 고정된 사고와 분석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역사가들이 관심을 갖아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관심은 비록 시간이 걸리는 일로 저널리즘의 즉흥성과 속물주의에서 한 발 물러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결코 실망하지 않고 깊게 그리고 느리게 반성하면서 사유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역사학이 가진 미덕이다. 사실 『미국역사학보』의 몇몇 놀라운 역사연구는 바로 이런 점에서 뛰어난 인내와 노력의 결과를 제대로 보여준 본보기이다. 그 때는 그 주제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또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개될 사료를 기다리고 탐사한 결과 새롭게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⁶⁾

다른 하나는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과거를 보는 것은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유혹이고 이런 방식으로 보는 역사가 더더욱 생동감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학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대안적 역사학의 영역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역사학회의 저널의 연구 성과는 이런 방향에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이런 추세가 과연 석유를 통한 지난 100년간의 역사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환경, 생태학 그리고 제3세계를 통한 석유생산과 소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에서 보듯 신 지평확대에 따른 주제의 저변확대에는 비록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의문을 타진하고 있다. 왜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여전히 지정학, 또는 요새 인기 있는 말로 지경학적인 접근이 주된 관심이 되어 왔고 결국 지금도 여전히 이 분야에서 중요하고도 핵심적이며 역사적인 경로를 탐색

165; Paul Chastko, "Anonymity and Ambivalence: The Canadian and American Oil Industries and the Emergence of Continental Oil," *Ibid.*, pp. 166~176.
Jay Hakes, "Introduction." *Ibid.* p. 22.

6) *Ibid.*

하는 글이 중단 없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⁷⁾

그러므로 본 글은 전통적인 주제와 연구방법을 통한 미국과 석유의 연구가 과거를 주된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우리 학문의 성격상 훨씬 유효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편으로 그 석유를 통한 현재의 관점에서 환경과 문화, 생태학의 논의를 “보다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석유의 역할과 이 물질 사용이 가져온 공과를 확인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적어도 미국역사학회 특집호의 주장을 이해하고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도 여전히 지정학적 접근 또는 지경학적 접근이 유효한 이유를 설명해 볼 것이다.

II. 본론: 석유연구의 대안적 접근

1. 장기 지속적 조망의 필요성

속도감을 요구하는 21세기는 느림보 역사가들에게 견고한 탐색에 기회를 주고 조용하게 기다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즉흥적이고 찰나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분석하기에 결론을 유의미한 탐색으로 길고 깊게 확인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19세기 장편소설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원인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톨스토이 류의 해결 방식은 지난 이야기이다. 역사주의적 분석과 결과의 황금시대는 지난 유물이다. 여러 사회 문화적인 연결망과 고밀도 된 기술의 전진이 만들어낸 것이 아쉽게도 촉각적이고 즉각적

7) “Oil in American History: A Special Issu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pp. 9~255.

인 사건의 발생과 이해로 이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찰나적인 시선과 단파적인 대답을 요구한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의 문답표는 즉시적이다. 허구와 진실이 몽매에서 짜여진 것이 대세가 되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행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관계학에서 움직이지 않고, 중력을 거부하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기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전통적인 자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초현실적이고 “미니멀리즘”적 자장에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에 일찍이 역사주의를 벗어난 것이다. 반진실과 허구가 가득찬 것들이 역사적 진실의 한 편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은지 오래다. 그러므로 대안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런 틀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워졌다. 메타역사학이 정통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순간이 오고 만 것이다. 모든 것은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인가 지금까지 다른 호기심과 소모적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건으로 비인과적으로 밀려간 다음 허상의 해답을 제시한다. 작금의 시대에는 휴지통에 버려야 할 소비주의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극단적인 세계를 목전에서 보고 느끼며 안타까워하지만 결국 다섯 개 손가락 속에 품은 작은 디스플레이어 안에서 꿈쩍없이 잠혀있을 뿐이다. 역사의 창조자이고 완성자이며 역사학의 존재 위상을 휴지통에 버리게 한 위대한 게임체인지가 바로 그런 기술 장치들이다. 그들의 무죄 감옥에 갇힌 우리는 단 하루도 가만히 진실을 갈구하지 않고 상상의 무한 세계를 터치하고 있다. 마셜 맥루한의 통찰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 진리가 구조화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역사학의 방식은 이미 19세기에 끝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역사학의 진정성과 떨어진 이유를 바로 이런 장면에서 분명히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역사학과 역사가는 죽은 학문이다.

최근 미국 석유를 역사단위로 해서 일어나는 주제와 외연확대에서도

유사한 현상과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석유라는 이 액체의 특성이 바로 “휘발성”이라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너지의 연구 경향성이 바로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분석이 라기보다는 그 물질의 휘발성만큼이나 다른 방식으로 관심이 변동하고 있고 더더욱 분명해 보이는 것은 현재 환경사적인 관심에서 과거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 관계 사건의 발생과 그것에 대한 속물적인 답을 만들어내는 즉각적이고 찰나적인 21세기적 대중연구의 플랫폼이 침투하여 번성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런 방식의 석유 공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사에 대한 지식고고학이 필요하다. 에피스테메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석유와 관계된 즉흥적인 사건의 발생과 그 반응의 관계동력학에 대한 연구사는 춤추고 있다.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석유에 대한 문명사적 숙명론이 그런 가벼운 경과에서 꾸러지고 그런 즉흥적 논의에 불과한 정보 산출이 거의 “눈부실 정도로”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석유에 대한 정보지를 가지고 잘못된 미래의 좌표를 기획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지금의 연구사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다른 말로 하면 석유가 역사 연구의 중요성으로 간주되어 왔던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과연 역사적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현재의 이해와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저널리즘에서 유용한 것이지 역사에서는 아니다. 역사가는 달라야 한다. 역사가의 특수한 직업의식이 이곳 석유와 연관한 분석에서 요구되는 이유이다. 특히 석유는 작금에 매우 중요한 논쟁의 주제이고 현재의 실리 문제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너무나 현재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특별한 조심성과 인내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물질의 이용에서 지구 문명의 몰두에서 벗어나 이제는 송두리째 제거하려는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어 보인다. 한쪽에서는 이 물질에 의존하는 이해가, 다른

한쪽에서는 이 물질의 이용에서 벗어나려는 전환이 있다. 이 두 세력 간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지난 100년간 모두가 이 액체에 몰입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반성적인 연구 없이 마치 “광장”식 선동주의와 마녀사냥과 같은 별주기를 이 물질에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안전한 미래의 연착륙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 보자. 석유 연구에 대한 역사가의 관심이 이 액체를 산업화·소비화로 진작하게 한 기술혁신과 그것을 후원하고 적용하는 구조와의 연관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기업가의 혁신과 신기술의 채용과 발전과정” 정도로 이해하였다. 이 산업이 지난 역사의 여러 지점에서 자장을 연결하고 그런 구조와 배경에서 신기술의 채용으로 밀려들어가게 되고, 결국 오늘날 보게 되는 생태학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을 파악하는 긴 여정의 조사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후원과 협력을 물밑에서 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함과 찰나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의 관계학으로는 안 되는 거시적, 장기 지속적인 자장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적어도 일정 정도의 경과를 끊임없는 유관관계학의 접촉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긴 수고가 필요하다. 질리도록 오랜 기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어떤 결과의 수순을 끈질기게 찾아보는 성실함 차원이다. 석유기업의 과잉적인 혁신과 투자가 가져온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유관 학문을 연결하는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바로 역사가 힌톤은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이런 깊이 있고 긴 과정을 보여준다.⁸⁾

미국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비공식적 후원과 지원

8) Diana Davids Hinton, “The Seventeenth-Year Overnight Wonder: George Mitchell and Unlocking the Barnett Shal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pp. 229~235.

하 석유중심 사회로의 전환과정은 놀라운 인내력과 더불어서 깊은 성찰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역사가 크리스토프 웰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석유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수요와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일으키게 위해서 아주 분명하게 의도된 기획”을 확인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자동차에 적합한 국가 기관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한 내용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과거이기도 하지만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긴 시간의 관찰이 요구된다.⁹⁾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모더니즘과 모더니아이제이션”과정에서 석유가 왜 극도로 중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이 액체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폐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왜 과거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석유에 몰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먼저 긴 안목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것은 즉각적인 관심과 해답을 요구하는 현재의 대중적인 소란과 목전의 관심을 손사래를 치면서 대신 깊고 발본적인 고찰을 해야만 하는 역사가의 일이다.

장기지속성 또는 거시적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역사가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는 다음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언급한 다이애나 힌튼의 경우가 바로 그런 취지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석유와 관계된 역사를 분석하는 그녀의 시선은 거시적이다. 그녀는 미래와 연결될 문제에 대한 거대한 자장으로 우리를 불러들인다. 이른바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has begun a new era in the world of energy) “세일”형태로 존재하는 석유와 가스를 수입과쇄방법으로 끌어올리는 최근 기술이 실제로 신기술이라 할 수 없는 긴 역사적인 경과가 있음을 살

9) Christopher W. Wells, “Fueling the Boom: Taxes, Invisibility, and the Growth of the American Highway Infrastructure, 1919-1956,”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pp. 72~81. 특별히 인용은 p. 73. Jay Hakes, “Introduction,” *Ibid.*, p. 23.

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석유산업의 부활과 환경차원의 문제점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 화석연료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인한 공포의 시간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이 놀라운 신기술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 문제는 최악의 수순으로까지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녀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 신기술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준다.¹⁰⁾

조지 P. 미첼(George P. Mitchell)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업가로, 그는 닥치는 대로 석유 채굴에 나서고 있었다. 그가 최초로 개발한 이 신기술은 땅속 바위로 둘러 쌓인 곳에 있는 석유와 가스를 올리기 위한 놀라운 혁신으로 간주된다. 바위를 파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놀라운 고수압법을 창안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가 바로 1977년이다. 바넷 셰일이라는 저류암지대를 개발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기술이다. 그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1981년 성공적으로 기름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과에 대한 깊은 분석과 이해는 좀 더 깊은 이해를 도와주는 역사가의 손길이 필요했다.¹¹⁾

역사가 힌톤에 따르면 중요한 사실은 “왜 석유사냥꾼이었던 미첼이 말도 안 되는 바넷 셰일이라는 땅 밑 암석에까지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이다. 이른바 혁신의 놀라운 방식이라고 알려진 이 사

10) Hinton, “The Seventeenth-Year Overnight Wonder”, *Ibid.*, pp. 229~235, 특히 인용은 p. 229 참조; 버넷 셰일의 장기지속적인 개발 과정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는 Daniel Yergin, *The Quest: Energy, Security, and Remaking Modern World*,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p. 326; Jay Hakes, “Introduction,” *Ibid.*, p. 23; 고재홍,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분지의 바넷 셰일 가스 시스템 Barnett Shale Gas System in the Fort Worth Basin, Texas, U.S.A.」, 『한국 지구시스템공학회 2007년 제89회 추계학술발표회』(2007. 11. 15.), 초록.

11) Hinton, “The Seventeenth-Year Overnight Wonder”, *Ibid.*, pp. 229~235.

실의 이면에서는 당시 석유를 둘러싼 정부당국의 정책과 전략적인 차원의 구조(structure)작업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른바 기업가와 혁신이라는 행위 “주체(agency)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유인 즉 1978년 미국정부는 이른바 천연가스정책법(Natural Gas Policy Act; 이전까지 미국의 천연가스는 주내와 주 외부 시장의 이원화로 시장왜곡이 초래하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는 최고가격제에 대한 규정도 있다.)을 실행하게 된다. 1973년 이스라엘이 야기한 중동전쟁이후 OPEC의 석유 감산으로 미국은 석유수급에서 국내외적 위기가 속출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국내차원에서 준비된 입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심연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추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었다. 물론 이 법률조항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 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의 여러 측면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1970년대의 위기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구조적 대응과 기업에 대한 후원 촉진정책이다.¹²⁾

역사가 힌톤은 현재의 단속적 비선형 연구로서 이루어내는 탐구와 그 기초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석유공부가 결국 실존적 문제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아가 깊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장기지속적인 관계학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런 경과에 대한 탐색에서 석유가 단지 왜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가, 기업 그리고 소비운동으로 이어지는 긴 구조를 통해 알아보게 한다. 여기에 국제 사회에서 이 에너지원을 확보, 유지 그리고 지배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긴 역사, 복잡한 역사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 과거의 여러 역사적인 시간의 좌표에 대한 단순히 읽기를 거부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의 실줄 날줄로 연결되어서

12) *Ibid.*

현재의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었는가를 유기적인 관계학에서 짚어보고 있는 것이다.¹³⁾

물론 최근 특집호를 통한 『미국역사학보』지에 실린 글의 다수가 그런 역사적인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이 “물질”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극증은 여전히 중요한 역사 분석이다. 사실 석유라는 액체를 구하는 방식은 고고학적 탐구이기도 하다. 역사학 또한 이와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고고학적 방식을 통해서 당시대의 단층적인 언어들의 사실들과 개념들을 찾아보고 이들 언어들이 다른 지층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변용될 수 있는지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보인다. 현재의 환경사적 문제에서 촉발된 관심만으로는 지난 세기동안 그렇게 중요한 물질로서 고려된 석유 역사에 대한 고고학적 심층 탐험으로 나아갈 수 없어 보인다. 사실 그런 면을 지적하지 않아도 결국 석유에 대한 연구에서는 장기 지속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른바 정치경제학, 지정학, 지경학적 관심이다.

2. 지정학적 연구의 필요성

BP사건은 석유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석유에 대한 역사가들의 관심은 장기지속적인 관계에서 탐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환경과 생태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역사가 캐스린 모스가 잘 보여준 것과 같이 석유연구는 현재의 요구와 찰나적인 관심에서 인식되고 연구되었다. 그녀는 “기름을 가득 썩은 새들과 자연생태계”와 “그들이 어떻게 수족을 못 쓰게 되고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

13) *Ibid.*

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결국 이러한 이미지 전쟁이 석유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미국인들이 앞 다투어 환경과 생태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편성하여 정치가 움직임에 따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왜 석유에 모든 문명과 국가가 몰입하고 되고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질문과는 멀어져갔다. 이 물질과 자원이 환경과 생태학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각 나라의 중요 산업과 생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선시되었는지를 찾는 질문이 이제는 고루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석유역사에 대한 “긴” 그리고 “두터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있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이 분야의 역사 연구는 경도 되었다.¹⁴⁾

캐스린 모스가 지적한 석유에 대한 이미지 전쟁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또 있다. BP이후 석유 문제에 대한 관심은 즉각적인 대중들의 반응과 그 이미지에 반응하는 국민들의 반응에서 석유가 가진 다른 차원에서의 관심은 완전히 삭제되는 듯 보였다. 2010년 4월 20일 멕시코 만에서 그 악몽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55일이 지난 후 나체를 한 자전거 무리가 맨해튼을 활보하면서 항의 시위를 했다. 이 장면은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인의 시선을 끌어 모았다 그들은 “more ass, less gas”를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고상한 저항(?)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톱 보위는 이러한 방식의 이미지 전쟁은 석유가 가진 실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속하게 책을 출판하게 된다. 현재의 석유와 관련한 문제들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도 지

14) Kathryn Morse, “There Will Be Birds: Images of Oil Disasters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Journal of American History*, pp. 124~134, 특히 p. 124 참조. 물론 모스도 이 문제에서는 장기지속성 조망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물질에 가진 이미지와 그것에 대한 편집적인 감정의 인식의 발생에 대해서 고려 분석하고 있다.

금의 즉흥적인 관심과 이미지 차원에서 석유를 보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옳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당시나 지금이나 석유를 가지고 있는 지구사적 이해 집단에 대한 분석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야말로 장차 석유 문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 차원의 발본적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지경학”적 차원의 긴 역사적 조망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¹⁵⁾

그는 우선 석유산업의 현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 역사로의 여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대 사회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로 이 에너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가격문제에서부터 환경파괴에 이르기까지 거의 미로처럼 얽히고 성긴 이야기를 길게 연결하고 있다. 당연히 석유기업들의 이해관계에서도 국가 간의 자원전쟁과 안보까지도 분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문화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석유와 관계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색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그 스스로가 이해하듯이 석유가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자명하지만 환경과 생태학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기대하듯이 대체 에너지와 기술을 통하여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그러나” 석유문명을 기술적 차원의 혁신을 통해서 완결적 해결로 이르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¹⁶⁾

15) Tom Bower, *Oil: Money, Politics, and Power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Grand Central, 2010. 필자는 이 장 “지정학 연구의 필요성”부분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책에서 많은 생각과 인용 또한 가져왔다. 특별히 지면을 통해서 감사를 표한다. Mark P. Mills, “Oil matters everywhere, and there is no alternative in sight.” *Wall Street Journal*, 2010. 7. 2.

16) *Ibid.*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계는 지금 대부분마다 4백만 달러 가치의 액체를 소모하고 있다, 매년으로 보면 거의 2조 달러에 이르는 이 액체가 구매되고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이 물질 문명과 문화에서 과연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질이 현대 문명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진데 이와 연관된 국제 경제, 정치, 안보 여기에 결정적으로 소비까지 관계된 유관 사업체들이 그렇게 쉽게 그 이해를 버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저자는 산술적인 통계를 좋아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노출한다. 매 초당 전 세계에서 1,000배럴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배럴의 석유를 통으로 쌓게 되면 그 높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시간당 불어나는 높이는 2,000마일 이상으로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¹⁷⁾

이것으로도 실감이 안날 것을 염려하여 그는 석유라는 물체가 가진 또 다른 차원 전략적인 차원 그리고 이른바 지정학적 차원도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깊고 길게 연구되어온 이 분야가 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새삼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자원의 80%가 국유화된 상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간기업의 소유가 작을 수밖에 없도록 왜 이렇게 각 정부가 그리고 각 국가가 안보적 차원에서 석유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를 소환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답까지도 묻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환경적인 차원에서 석유를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BP이후의 관심은 이 물질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안을 찾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며,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다지 낙관적이지도 않음을 보여준다.¹⁸⁾

17) Mills, "Oil matters everywhere," *Ibid.*

18) Bower, *Oil: Money, Politics, and Power*; Mills, "Oil matters everywhere," *Ibid.*

보위의 다음과 같은 설명도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물질을 역사적 관점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다. 즉, 바로 정치가들이 석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BP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저명한 브라운니경(Lord Browne)에서 시작하여 미하일 고르바초프, 지미카터, 마가렛 대처, 부시 부자 등 중요한 정책결정자들을 소개하면서 이 물질이 어떻게 세계사 사건과 역사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정학적 조건(geopolitical power)으로 석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다. 멕시코 만에서부터 북해까지, 나이지리아에서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석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적절한 세계정치, 세계경제를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기술사적인 접근이나 환경사적인 접근보다도 지정학적 접근이 이 자원의 운위의 시대를 새삼 확인 시켜준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 물질을 지정학적 차원에서 연구해왔다. 그러나 BP사건이후 노골적으로 환경사위주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서 지정학적 분석이 축소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주의적 시각에서 환경사적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관점으로 살펴 볼 분야가 적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새로운 방법론과 그리고 사료가 여전히 이런 관점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이 석유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지정학적 프레임을 이해하고 그런 바탕에서 새로운 대안 에너지를 구축하는 노력에서도 과거의 긴 역사에서 석유가 가진 그 긴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¹⁹⁾

19) Bower, *Oil: Money, Politics, and Power*, 제1장, “The Emperor,” pp. 15~32, 제3장, “The Master Trade,” pp. 32~56. 석유와 지정학관계 연구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00년 이전의 자료는 양홍석, 「석유와 미국 역사가들의 기억전쟁(I)」, 166~167쪽, 주 22번 참조. F. William Engdahl, *A Century of*

강대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석유가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지적하는 대목도 흥미로운 사실들이다. 보위는 많은 부분에서 어쩌면 과도할 정도로 러시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저서를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왜 이 나라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

War: Anglo-American Oil Politics and the New World Order, Wiesbaden, Germany: Bunsenstrasse, 2011; David E. Spiro, *The Hidden Hand of American Hegemony: Petrodollar Recycling and International Market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John W. Frey and H. Chandler Ide, eds., *A History of the Petroleum Administration for War, 1941-1945*, Honolulu, Hawaii: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5; Daniel Yergin, *The Prize: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 Power*, New York: Free Press, 2008; *The Quest: Energy, Security, and Remaking Modern World*,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Burton I. Kaufman, *Trade and Aid: Eisenhower's Foreign Economic Policy, 1953-1961*,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Press, 2019; 최지웅,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1차세계대전에서 금융 위기와 세일 혁명까지 석유가 결정한 국제 정치 세계 경제의 33장면』, 부키, 2019; Stepehn J. Randall, *United States Foreign Oil Policy since World War I: For Profits and Security*, Montreal & Kingston: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2005; Michael B. Stoff, *Oil, War, and American Security: The Search for a National Policy on Foreign Oil, 1941-1947*,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0; 이해정 지음, 『냉전 이후 미국패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 한울아카데미, 2017; Jan H. Kalicki and David L. Goldwyn, eds., *Energy and Security: Strategies for a World Transition*, Washington, D. 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3; Steve Coll, *Private Empire: Exxonmobil and American Power*, New York: Penguin Books, 2013; 조비 프리드먼 지음, K전략연구소 옮김,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제국으로서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김앤김북스, 2018; 존 J. 미어세이머 지음. 이춘근 옮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김앤김북스, 2019; 피터 자이한 지음, 홍지수 옮김, 『세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 세계 질서의 붕괴와 다가올 3개의 전쟁』, 김앤김북스, 2020; Daniel Yergin, *The New Map: Energy, Climate, and The Clash od Nations*, New York: Penguin Press, 2020; 백창제, 『미국패권연구』, 인간사랑, 2009; Tom Bower, *The Squeeze: Oil, Money and Greed in the 21st Century*, London: Harper Press, 2009.

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외화벌이”를 보면 정확하게 그 범위를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 나라의 석유는 바로 유럽과 미국의 정치지도자에도 꽤나 신경을 쓰이게 하는 문제였다.²⁰⁾

미국이 두려워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OPEC가 석유를 무기로 좌지우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의 석유는 한편으로는 대안이며 한편으로 위협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가진 석유매장량은 대부분은 쉽게 채굴할 수 없는 지층에 있다. 결국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서방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의 석유기업과 거래를 만들어보려는 서구의 정치가들에서부터 기업 경영진들의 필사적인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정학이 고려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지경학이 관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분석하다 보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지난 석유시대에 대해서 어떤 차원의 탐색이 필요한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냉전 이후에도 “지정학”과 “지경학”이 결합하여 이 물질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²¹⁾

서방에서는 기술자들과 전문가를 제공하면서 이 나라의 석유 채굴의 장애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런 방식의 해결을 이룩하기에는 쉽지 않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었다. 석유와 관계된 역학구조, 바로 지정학적 딜레마이다. 서방의 사업자들이 생각

20) Bower, *Oil: Money, Politics, and Power*; Mills, “Oil matters everywhere,” *Ibid.*

21) *New York Times*, 2003. 4. 23; *Wall Street Journal* 2001. 8. 29. Bower, *Oil: Money, Politics, and Power*, pp. 2~14에서 재인용.

했던 방식으로 일이 진척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이 되는 등 마는 등 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지정학이 이유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나라의 석유기업을 운영하는 총수들에 대한 “돌격작전”(shock-troop arrest)이 진행되었고 그들 모두 체포되었다. 이권을 챙기려는 서방의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냉전의 거대한 한 축이었던 이 나라가 석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다.²²⁾

보위는 이 저점에서 자신의 관점을 몇 번이라도 강조하고 싶었나 보다. 1990년대 어느 순간을 언급하면서 “어느 누구도 정말로 전 국토에 걸쳐 비매품(NOT FOR SALE)이라는 큰 팻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었다. 산업계의 거물이든 서구의 정치가들이든 그들이 러시아의 사업관계자 또는 권력자들과 회의를 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계약을 성사했다고 만족하고 있는 사이에 서구 사람들이 잠시 놓치고 만 것이 석유에 관계된 지정학적 차원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²³⁾

저자는 이 물질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의 이 나라의 풍부한 매장량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진정한 권력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박사학위논문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푸틴은 논문에서 “러시아의 강대국으로 변영과 부활”을 꿈꾼다면 오직 “이 국토 안에 존재하는 천연 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고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바로 어떤 말보다도 이 한문장이 석유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을 단번에 확인 시켜 준다.²⁴⁾

BP 충격 이후에 여러 측면으로 연구 시야가 확대되어 간다. 특히 지금

22) *Ibid.*

23) *Ibid.*; Mills, “Oil matters everywhere,” *Ibid.*

24) Bower, *Oil: Money, Politics, and Power*, pp. 244~245.

의 환경중심의 연구경향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속살을 헤쳐 보면 더더욱 문제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석유기업들이 환경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이다. 이들 기업이 석유 사업을 유지 및 지속하기 위해서 보이는 술수는 키메라 수준으로 변화무쌍하여 그들의 속셈과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갑절의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다.²⁵⁾

석유 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환경운동의 밑그림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BP가 멕시코 만에서 대재앙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된다. 그들은 이미 석유관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개선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BP의 최고경영자인 브라우니경(Lord Browne)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는 기업의 가치와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보았다. 1990년대는 환경차원에서 석유기업들에 비난을 쏟아 붓고 있었다. 그는 당시 이미 이런 부분에서 석유기업의 이미지 재고에 집중하고 있었고 바로 결실을 보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이 기업의 이미지로 세간에 자리 잡게 되는 “석유를 넘어서”(Beyond Petroleum)라는 로고이다.²⁶⁾

물론 이런 운동 와중에도 이 기업이 사활을 석유에 걸고 있었던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브라우니경은 세상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업 이미지를 새 단장하는 취지로 스탠포드대학에서 강의를 하였고 유명한 “찰리로즈”(Charlie Rose)쇼에서도 등장하였으며 환경운동 단체인 그린피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군분

25) *Financial Times*, 1997. 10. 14; Bower, *Oil: Money, Politics, and Power*, pp. 73, 178~179, 230, 336, 395.

26) *Ibid.* 특히 BP라는 회사명이 “Beyond Petroleum”라는 이미지 조정운동을 통하여 친환경, 생태학적 기업이라는 개선운동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pp. 227~232 참조.

투하였다. 그는 또한 태양열기술개발에 당시로서는 거액인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다. “석유를 넘어서”(Beyond Petroleum)라는 캠페인을 위해서 당시 광고홍보계의 주목할 만한 기업 오길비엔매더(Ogilvy & Mather)를 끌어와서는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1997년 5월에 오면 브라우니경은 BP가 석유기업으로서는 최초의 “녹색”기업이 될 것을 선언한다. 기업은 무려 200쪽에 이르는 기업 “이미지 매뉴얼”(Reputation Manual)을 준비하였다. 녹색 성장을 위한 기업의 발군을 노려 광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어서 곧 바로 텍사스 휴스턴에 “전략회의실”(war room)를 만들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그것은 결국 장기적인 언론 홍보전을 위한 준비였다, 기업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무려 2억 달러의 거금을 투자한 것이다.²⁷⁾

대중들과 정부의 환경 감시 기관도 이와 같은 석유기업의 이미지 창출에 감격할 정도였다. 사실 이 기업의 걸만 번지르르 속은 텅빈 노력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결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2010년 세상의 눈을 황망하게 만든 그 재앙이었다. 멕시코 만이 기름으로 뒤덮이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이 기업의 쌓아놓은 변화 노력이 사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은 이들의 처음부터 저속한 수법과 화려한 변장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BP는 결코 “석유를 넘어서”를 실천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석유기업이 과연 중요한 경제적인 이해와 과실을 쉽게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다만 그들은 대중을 현혹하는 이미지 전쟁을 통해서 녹색기업인 채 하는 시늉을 한 것이다. 최근 기업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환경친화적 경영 움직임도 본질은 바뀌지 않은 빛 좋은 개살구일 경우가 많다.²⁸⁾

27) *Ibid.*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향해 들어가 본다. BP를 통해서 석유와 연관된 이 시대 강대국의 관심은 결국 검은 액체를 어떤 방향에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발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선 석유는 지상에서 어느 에너지 자원보다 탁월하다. 질적 양적 수준 모두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그 가치는 높고도 높다. 그러므로 환경적인 차원에서 고려한다고 해도 이런 고급 자원을 버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BP와 같이 사실 우리는 환경이라는 좋은 치장만을 걸고 여전히 이 물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대안 자원을 여전히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왜 인류는 지난 세기에 이 자원에 몰두해왔고 지금에도 여전히 증독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하물며 이 에너지를 장악을 놓고 지금도 여전히 힘센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력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0년간의 다툼도 또한 이런 이해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근대 적어도 이 물질에 대한 과거의 관심과 이해를 공부하는 역사학에서는 어디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지 분명하다.

여기에 에너지원으로서 석유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고급 에너지 자원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최상의 안전함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석유는 저장과 운반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수소나 원자력에 비하면 위험지수가 현저히 낮다. 현재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지만 석유만큼 최적의 만족을 주는 에너지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석유는 언제나 준비되어야 할 자원이다. 올해 말 미국이 세계 경제의 운위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서 제일 먼저 석유 비축물자를 푸는 것을 보아도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지금 가격보다 두 배가 되더라도 석유는 감히 버릴 수 없는 자원이다. 거리에서, 도시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이

28) Bower, *Oil: Money, Politics, and Power*; Mills, "Oil matters everywhere," *Ibid.*

에너지가 없을 경우 일어날 위기를 상상만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만일 이 물질의 다양한 변화물인 액화탄화수소(liquid hydrocarbons) 즉 천연가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공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석유와 관계된 에너지는 현대생활에서는 생존의 문제이다.²⁹⁾

BP사태로 미국 역사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태학과 환경사적 접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의 석유사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결코 의미 있는 역사연구의 한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역사의 경중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말이다. 아니 노골적으로 말해서 석유라는 자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방식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환경사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태학적 위기를 외치면서 석유시대의 과오를 지적하고 대안에너지를 찾는 작업에서 보이는 매우 황당한 사실도 왜 우리가 당분간 석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다. 나아가서 각 국가가 지난 100년간 지정학, 지정학적 접근에서 이 문제를 다룬 이유를 우회적으로 말해 줄 수 있다. 대체 에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가 석유를 대신한 날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포스트오일 이후의 “절대반지”로서 또는 “게임 체인저”로서 대안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경 차원의 대체 기술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³⁰⁾

〈가디언〉지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로 쓰이는 리튬을 채취하기 위해 파괴되는 환경”에 대한 믿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을 신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동하는 이차전지의 핵심 활성 물질인 리튬은 밀도가 낮은 금

29) *Ibid.*

30) *Ibid.*

속이면서 무게 대비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전기자동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다.” 그런데 이 “은백색 알칼리 금속으로 하얀 기름이란 별명이 붙은 리튬을 둘러싸고”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절반 이상(55%)이 호주에서 채굴되었다. 칠레(23%), 중국(10%), 아르헨티나(8%)”순으로 이어진다. “모든 생산 국가들이 리튬배터리의 주 수요처인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리튬배터리가 각광 받자 유럽에서는 가까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리튬 광산 개발”이 시작되었다. 포르투갈 증북부는 향후 10년 동안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표적 개발지가 되었다. 그러나 “리튬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파괴는 내연차 대체라는 더 큰 환경적 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리튬 채굴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로드아일랜드프로비던스대학 리오프란코스(Riofrancos)박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 및 생산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전기 자동차는 엄청난 양의 채굴, 정제 및 그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오염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혁신에너지원으로 시선을 모은 것도 사실과는 다르고, 또한 현재 에너지 자원의 변화에서 탈탄소시대의 별다른 절대반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³¹⁾

이러한 논란 속에서 매일 국제 뉴스는 석유가격과 생산량을 운위하고 있다.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의 주된 관심은 결국 석유이다. 지난 100년간의 에너지 역사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역사가들은 현재의 환경, 또는 생태학적 문제를 벗어나 지정학적 혹은 지경학적 자원에서 이 검은 물질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다툼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어

31) 「하얀 기름의 저주: 전기자동차의 더러운 비밀」, 〈가디언〉, 2020. 12. 8; 박홍수, 「전기 자동차의 ‘더러운’ 비밀」, 〈프레시안〉, 2020. 12. 29에서 재인용.

도 역사학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기억들의 흔적을 분명히 매듭짓는 일을 하는 경우라면 말이다. 그리고 환경과 생태학이라는 화두를 풀어가는 방식은 결국 에너지 부분의 절대반지를 찾기 전에 우리 인간의 오만한 소비 부분의 패러다임의 방식과 관습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우리 자신만은 이 사실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니 안타깝다.³²⁾

다음의 인용문도 대안에너지 자원으로의 순항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의 석유세계에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절대반지”로서 석유가 지난 10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끊을 수 없는 “에너지 마약”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들이 이 에너지를 지정학, 지경학 차원에서 소중히 다루어왔던 이유가 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석탄·석유를 때는 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나 풍력·태양광발전소”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나 풍력 터빈, 태양광 집열판”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희귀 금속”이 채굴되어야 한다. “바나듐·게르마늄·플라티노이드·텅스텐·안티몬·베릴륨·레늄·탄탈·니오븀·희토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얻는 과정은 친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오염을 만들어 낸다. 이들 “희귀 금속은 거대한 암석 속에 극소량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희귀 금속 1kg을 얻기 위해 바나듐은 8.5t, 갈륨은 50t, 루테튬은 1200t의 바위를 정제”가 필요하고 이것은 석유가 지구를 해악하는 만큼 반환경적이다.³³⁾

32) 앞의 책.

33) 기욤 파트롱 저, 양영란 옮김,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갈라파고스, 2021. 인용문은 오남석, <문화일보>, 2021. 10. 26에서 재인용.

Ⅲ. 결론

BP 이후 미국 석유역사는 전통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측면으로 문제를 확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주제인 석유와 지정학, 지정학적 고리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제외교, 제국주의적 석유장악문제를 다루고 있는 접근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공개, 새로운 방법론과 접근방식으로 기왕의 사료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기묘한 모색이 창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추세는 문화사 그리고 생태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최근의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볼 때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문화사와 환경사적 귀추가 석유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미래의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통적인 접근법은 여전히 타당한 접근으로 소환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야 작금의 문화 환경사적 접근과 연구가 안전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안전한 대안이란 진부할 정도로 이야기되는 과거의 경험에서 값진 대안을 찾아내고 그런 면에서 미래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현재의 에너지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석유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어느 정도에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금도 각 국가가 석유를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원이지만 석유의 생산과 분포는 몇몇 나라로 한정되어 있다. 자원의 유한성에서 각 나라는 이 물질을 전략자산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이 물질의 유통과 확보를 위해 치른 긴장과 전쟁이 그런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모든 경제는 결국 이 자원의 안전이 보장될 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산이 특정 국가와 특정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이 물질에 대해 높은 해외 의존도를 지닌다. 이것이 바로 석유관계로 복잡다단한 세계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지난 한 세기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자임하는 초강국으로 인해 세계정치와 경제는 소용돌이치게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 일방주의라고 비쳐지는 바로 미국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미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지정학자” 피터 자이한의 탁견을 보자. 누구나 잘 알듯이 그는 대표적인 미국의 보수주의자이다. 그는 지정학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탁월한 예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그의 저서가 우리 손에 들어왔다. 석유와 관련한 대작이다. 원본은 2017년 작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적절한 웅변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저작 『세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충실한 정보와 폭넓은 관심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취할 미래전략을 확신에 가까운 신념 아래 예측”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에너지, 특별히 셰일이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석유이야기이다. 저자는 셰일 혁명이 미래가 아닌 현실로 자리 잡았으며, 그 결과 미국이 급격하게 외교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수정이라 함은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더는 수행하지 않는단 뜻이다. “셰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뤄냈고 천혜의 지정학적 조건과 안정된 인구구조를 가진 미국이 폐쇄적 초강대국으로 자리한다면, 남은 세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혼돈의 장으로 돌입”하리란 그의 예측이다. 중요한 건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일이다. 그의 날카로운 예단이 맞고 틀리다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정학을 벗어나는 미국의 모습이 그려진 주장에서 세상은 가히 충격적인 상태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전에 미국이 세계를 석유를 가지고 전개한 지정학적 역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 100년간

의 역사는 결국 지정학적 차원에서 석유를 보고 이해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부분이다.³⁴⁾

이제 길고도 긴 이 글의 종착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지막 이 지점에서도 영악한 재주를 부리기로 한다. 워낙 이 분야에서 문기(文氣)와 내공(內功)이 없는 지라 시사적 이슈를 가져와서 “석유와 미국역사가의 기억전쟁”이라는 이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논의를 통해 결말을 맺고자 한다.

첫 번째는 중국에 관한 자료이다. 현재 “세계최고의 국가로 돌진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에 있다는 것과 그중에서도 석유를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지역의 솟아오르는 강대국 바로 중국이다. 이 나라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의 북동부지역까지 이르는 거의 620마일의 석유송유관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200년간 카자흐스탄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이다.” 석유를 통한 지정학이 현재와 그리고 과거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이다.³⁵⁾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 美, 獨·러 가스관 사업 제재… 유럽 동맹 흔들리나”라는 제목과 함께 실린 글과 그림 자료이다. 자료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 “노드스트림2” 사업에 관계된 기업에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전 대통령 트럼프는 퇴임 전날에 ‘미 적대세력 통합제재법(CAATSA)’에 따라 같은 회사와 선박을 제재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할 경우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커질 거라” 예상한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³⁶⁾

세 번째는 이 글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탄소재앙론을 외치고 그린에

34) 피터 자이한, 홍지수 옮김, 『세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김앤김북스, 2019. 〈파이낸셜뉴스〉 2020. 12. 25. 서평 참조.

35) 박홍수, 「전기 자동차의 ‘더러운’ 비밀」, 재인용.

36) 〈한국일보〉, 2021. 02. 20.

너지로 몰두하고 있는 국가들에 관한 자료이다. 유럽이 석유와 천연자원 부족으로 올 겨울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되자마자, 영국에서는 석유 배급 문제의 안전을 위해 군대가 거리를 횡보했다. 중국의 경제도 올 겨울 에너지 자원의 준비부족으로 암울하게 예측된다. 그리고 올해 후반기의 세계 경제전망까지도 우울하다. 이런 에너지문제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수가 있었다. 그들이 왜 들어갔고 왜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되지만 사실 이면의 중요한 요인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 더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내장된 석유의 확보에 있었다. 여기에 남동아시아 해역에서 그리고 대만해역에서 중국과 미국은 일촉즉발의 전쟁까지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도 결국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가 결정적인 이유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 지역에서 오는 석유의 안전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고감도의 전략적인 차원의 상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더더욱 역사가의 관심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세계정치, 세계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명분으로 전략비축유를 풀고 있다. 한국도 그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영향권 하에 있다. 탄소제로시대로 가는 세계에서 여전히 이 검은 황금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세계의 지정학, 지경학, 그리고 정치경제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보다 더 확실히 증명해주는 것도 없어 보인다.

(2021.10.14. 투고 / 2021.11.08. 심사완료 / 2021.12.14. 게재확정)

[Abstract]

Oil and American Historians's New Horizon(II)

Yang, Hong-Seuk

The first previously my article of in this subject aimed to understand the recently American history of historiography on the oil study. Specially, this writer focused why and how American historians could been approached and transformed into the oil and its many interesting-subtitle in the long historical vistas. On the while in this second article, I approached mainly focused on oil's strategic and tactical weapons to develop America friendly environmental condition in the world politics and economics. Even though,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pproaches are very important trends in this dangerous crisis, I argued this trends are not rational approaches, because oil has been considered as much more important in the geopolitic, and economic history.

□ Keyword

oil, retrospect and prospect, geopolitics, ecological history, BP disaster

[참고문헌]

- Bower, Tom. *Oil: Money, Politics, and Power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Grand Central, 2010.
- Hakes, Jay. "Introduction: A Decidedly Valuable and Dangerous Fuel."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Black, Brain C. "Oil for Living: Petroleum and American Conspicuous Consumpt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Chastko, Paul. "Anonymity and Ambivalence: The Canadian and American Oil Industries and the Emergence of Continental Oil,"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Hakes, Jay. "Introduction: A Decidedly Valuable and Dangerous Fuel,"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Haycox, Stephen. "'Fetched Up': Unlearned Lessons from the Exxon Valdez,"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Hinton, Diana Davids. "The Seventeenth-Year Overnight Wonder: George Mitchell and Unlocking the Barnett Shal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Jones, Toby Craig. "America, Oil, and War in the Middles East,"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Klieman, Kairn A. "U.S. Oil Company, the Nigerian Civil War, and the Origins of Opacity in the Nigerian Oil Indust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Lifset, Robert and Brain C. Black. "Imaging 'the Devil's Excrement': Big Oil on Petroleum Cinema, 1940-2007,"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Merrill, Karen R. "Texas Metropole: Oil, the American West, and U.S. Power in the Postwar Years,"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Mills, Mark P., "Oil matters everywhere, and there is no alternative in sight." *Wall Street Journal*, 2010. 7. 2.
- Morse, Kathryn. "There Will Be Birds: Images of Oil Disasters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Painter, David S. "Oil and the American Centu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Pratt, Joseph A. "Exxon and the Control of Oil,"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Priest, Tyler. "The Dilemmas of Oil Empir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Priest, Tyler and Michael Botson. "Bucking the Odds: Organized Labor in the Gulf Coast Oil Refining,"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Yergin, Daniel. *The Price: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and Pow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1.
- Yergin, Daniel. *The Quest: Energy, Security, and the Remaking of Modern World*,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 Sabin, Paul. "Crisis and Continuity in U.S. Oil Politics, 1965-1980,"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Santiago, Myrna. "Culture Clash: Foreign Oil and Indigenous People in Northern Veracruz, Mexico, 1900-1921,"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June 2012.
- The Formular*, dir. John G. Avildsen, MGM, 1980.
- Wells, Christopher W., "Fueling the Boom: Taxes, Invisibility, and the

- Growth of the American Highway Infrastructure, 1919-1956,”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9, 2012.
- 기욤 파트롱 저, 양영란 옮김,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갈라파고스, 2021.
- 고재홍,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분지의 바넷 셰일 가스 시스템 Barnett Shale Gas System in the Fort Worth Basin, Texas, U.S.A.」,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2007년 제89회 추계학술발표회』, 2007. 11. 15.
- 박홍수, 「전기 자동차의 ‘더러운’ 비밀」, 〈프레시안〉, 2020. 12. 29.
- 양홍석, 「석유와 미국역사가들의 기억전쟁 (I)」, 『동국사학』 70, 2021.
- 에밀리 로젠버그 저, 양홍석 역, 『미국의 팽창: 미국 자유주의 정책의 역사적인 전개』, 동과서, 2003.
- 〈파이낸셜뉴스〉 2020. 12. 25.
- 피터 자이한, 홍지수 옮김, 『세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서울: 김앤김북스, 2019.

